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스포츠는 인간의 신체가 감당하는 중력과 무게 그리고 속도의 한계를 시험한다. 운동선수들은 강건한 신체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제 시간과 노력을 다 바친다. 그들은 근육을 단련하고 운동 기량을 가다듬느라 숱한 낮밤을 연습으로 지새운다. 운동선수에게 기량의 양질 전환은 혹독한 연습의 반복과 그 누적에서 나온다. 승리는 피와 땀과 눈물뿐만 아니라 자기희생을 감당한 자, 즉 자신을 불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자 그 열매다. 그런 까닭에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극의 순간은 우리를 열광으로 이끈다. 지금 도쿄에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이 한창이다. 세계를 뒤흔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림픽은 한 해나 늦춰졌다. 결국 올림픽은 무관중 경기로 열렸는데, 벌써 '최악의' 올림픽으로 짝퉁 만큼 탈도 많고 뒷말도 많다. 하지만 폭염과 여러 난관 속에서도 각 나라 선수들의 빼어난 기량과 집중력, 담대함, 열정은 많은 감동을 안겨 주고 있다. TV중계로 올림픽 경기를 관전하며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와 휴먼드라마에 가슴이 더워질 때마다 박

매너는 승리보다 더 값지다

수를 치는 것은 무더위마저 잊게 하는 즐거움이다. 젊음의 숫구치는 기가와 단련된 육체가 뿜는 열정과 흥분에도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게 싫지 않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에서 본패했다. 국민의 열광과 기대를 모은 우리 축구대표팀에게는 불운하고 아쉬운 경기였다. 우리나라는 1948년 이래 축구에서 뉴질랜드에 진 적이 없다. 그런 뉴질랜드에 패배한 선수들이 받은 충격과 아픔은 가능하거조차 어렵다. 경기가 끝난 뒤 뉴질랜드의 크리스 우드 선수가 패배로 어깨가 처진 이동경 선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지만 이 선수는 악수를 거절하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그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혀 방송을 탔다. 아차, 싶었다. 이 선수는 좋지 않은 매너로 구설수에 오르며 비판을 받았다. 이겨야 할 경기에서 진 탓에 실망하고 기분이 나빴겠지만, 그래도 패자의 품격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남자 유도 100kg급의 조구함 선수는 유도에서 첫 은메달을 땀다. 조 선수는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4강전에서 포르투갈의 조르지 폰세카 선수와 경기를 치렀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상대 선수는 왼손을 움켜쥐고 찢절됐다. 상대 선수가 쥐가 나서 뻣뻣해진 왼손을 풀려고 애쓰는 동안 조 선수는 공격을 멈추고 기다렸다. 경기 종료 16초를 남기고 폰세카 선수를 업어치기 기술로 이겼지만 그 승리보다 조구함 선수가 보여 준 배

려와 존경이 빛난 경기였다. 조 선수는 은메달보다 더 값진 매너로 찬사를 받았다. 경기가 끝나자 두 선수는 꼭 끌어안았다. 조 선수는 폰세카의 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번 올림픽에서 내가 짙는 가장 감동을 주는 순간 중 하나다. 최선을 다해 승부를 겨룬 두 선수에게 승자와 패자라는 가름은 별 뜻이 없어 보인다. 올림픽 참가를 위해 4년 혹은 그 이상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에는 메달이라는 포상이 주어진다. 하지만 올림픽은 메달 경쟁이 전부 아니다. 올림픽은 인종·종교·이념을 넘어서 신체의 강건함과 같고 닦은 기량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 제전이다. 더 나아가 스포츠를 매개로 평화와 우정을 쌓고, 인류 공동의 선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의례이다.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인 것이다. 이런 올림픽에서 승리를 한 선수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영예를 드높인다. 승리를 거머쥐려고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은 아름답다. 하지만 매너가 없는 승리의 예의는 불품이 없을 뿐더러 아비하고 추하다. 운동선수에게 승리를 뒷받침하는 기량의 연마도 중요하지만 매너를 상실한 선수의 승리와 기량의 빛은 바래진다. 매너는 배려와 존중의 시작점이다. 매너는 제 안의 사람됨이 드러나는 기초적 교양이고 예절의 토대이며 인격 그 자체다. 매너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의 한 표준을 제시한다. 좋은 매너는 항상 참된 삶의 바탕이다. 이것이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매너를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社說

민주당 경선 네거티브전 득 될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전 마강한 민주당 2차 선거인단 모집 결과 선거인단 수가 186만 명을 넘어섰다. 앞으로 3차 모집에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인단 214만 명을 훌쩍 넘어 25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기폭적인 규모의 선거인단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경선 흥행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각 후보 진영이 조직을 총동원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민주당 경선의 조기 과열은 여론조사 1·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각각 선거인단 모집에서 서로 자신들이 앞섰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줄곧 이 지사를 비난해온 배우 김부선 씨의 주장을 거론했고,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와 최성해 전 중앙대 총장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의 감정선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 측은 김부선 씨의 SNS를 근거로 이 지사의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반면, 이 지사 측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각을 세웠던 최 전 총장과 이 전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어떤 사이인지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네거티브전은 민주당은 물론 두 후보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다. 네거티브전이 가열될수록 중도층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 뻔하다. 최근 비방전이 격화되면서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이제부터라도 비방전을 접고 정책 경쟁을 펼치는 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사라지는 '중앙 육교' 작은 표지석이라도

52년 전인 1969년 4월 14일 오전 8시 20분께 중앙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등교하던 2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전남도청에서 옛 광주역 방향으로 과속하던 택시에 치인 여학생은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 당시 금남로는 노폭 확장 공사 중이어서 중앙초 앞 도로는 교통량이 많았다고 한다. 사고 이후 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하자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광주 시내 초등학교 어린이 대표로 구성된 '화랑회'는 7월초 회의를 가진 뒤 건의문을 냈다. 건의문에서 이들 어린이들은 "가급 뉴스나 영화에서 서울의 어린이들이 반잡한 거리를 안심하고 육교로 건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통이 번잡한 이 거리(중앙초등학교 네거리와 양동초등학교 앞길)에 육교를 세워 두려움 없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요"라고 호소했다. (광주일보 1969년 7월 6일 보도)

광주일보에는 즉각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기사를 6회에 걸쳐 게재한 데 이어 '학교 앞 육교를 세워 주자'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광주 어린이와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마침내 같은 해 9월 18일 중앙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세워졌다. 시민들의 모금(81만3785원)과 시도 예산을 더해 광주에 최초로 건립된 육교였다. 이러한 역사를 품은 '중앙 육교'가 7월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어진 지 52년이나 돼 노후 된 데다 거동이 불편한 노령인구가 늘어난 때문이다. 하지만 육교를 그냥 흔적도 없이 철거해 버리기에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육교라는 시설물로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앙 초등학교 앞 육교는 '광주 풀리' 이상의 상징성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따라서 작은 표지석이라도 세워 52년 전 육교를 세웠던 당시 광주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는 것은 어떨까?

기 고

호남은 왜 낙후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나

특히 호남의 대부분과 일부 경북 북부, 경남 북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더욱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호남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있다. 2018년 89개였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20년 105개로 4년 만에 16개나 늘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1960년 이래 이른바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도 산업과 지역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작용이 너무 커 국가 발전에 오히려 큰 해가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시책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수도권-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축 중심의 집중 현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백악이 무효'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적극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60여 년 동안 수도권과 영남권에 재정의 64.1%가 집중되어 배분되었지만, 충청권과 호남권에는 13~15% 안팎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분석한 것처럼 대형 프로젝트 중에서 수도권과 영남권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혹은 면제 비율이 61.5%에 달하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이러한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30년 이상 수도권 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개혁할 필요가 있다. 또 자치단체 사이에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공모 사업 제도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모가 아니라 비수도권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집중 지원해야 한다. 경제학에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수요만 따라갈게 아니라 낙후 지역에 SOC를 우선 공급하면 이를 바탕으로 수요가 일어나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충청권은 이미 수도권화 되었다)을 그대로 방치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국가적으로 투자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비수도권의 어려움은 국가 전체로 확산되어 국가 발전에 더욱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지금에 이르러 오히려 지역 불균형 발전을 부추기는 것 같다. 특히 10개의 혁신도시 선정에 있어 전국에 기계적으로 골고루 나누면서 국가 불균형 발전의 혜택을 입은 울산-부산-대구-경북-경남에도 혁신도시를 설치한 것은 균형 발전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수도권화된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아무리 정치권에서 밀어부친 일이라 하더라도 심히 유감이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재검토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안한 것처럼 행정안전부와 통합하여 가정 지역균형발전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1945년 해방 후 국내 인구 최대 지역은 전남과 경북, 경남이었다. 인구 점유율은 똑같이 각 15%대였다. 1960년에는 전남·전북 595만 명, 경남·경북 803만 명으로 서서히 격차가 벌어졌다. 이후 인구 이동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데 2019년 호남(광주·전남·전북)은 514만 명,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은 1188만 명으로 두 지역 간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난다. ('통계청 본 한국지방자치단체 70년 변천사' 양영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2019년 말 기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인구가 집중되면 경제력도 집중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수도권 GRDP(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이미 2017년부터 비수도권을 초과하였고, 1000대 기업 중 수도권 비중이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체의 81%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에 경제력이 편중되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인구가 대거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들 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며, 그중에서도

종교칼럼

'우리'

집단이기주의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 우리 모두가 불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도 되는 양, 과거의 성취에 만족하며 머물러 즐기고 있지 말라는 말씀이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우리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자포자기할 수 없다.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 사회를 분열시켰고 차별을 만들어 냈던 편견에 굳건히 맞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는 조금 더 밝아질 것이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이 특권의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고 슬픔을 안겨주었는지 모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다른 이들보다 무엇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열등하게 대하고 착취했던가! 그러나 중독과도 같은 이 특권의식은 한번 누렸던 것이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한다. 한번 맛있는 것을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에게서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왔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삶을 살

면서도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을 하나가 되어 함께 이겨 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우리'라는 힘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인류가 '우리'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구원 역사의 시작에 '우리'가 있었고, 그 마침에도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서 발생되고,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나'만을 위하고 '자국'만을 위하는 폐쇄적인 편협함에서 벗어나 '우리'를 회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들, 취업이 어려워 단순 노동에 내몰리는 청년들, 나이 들어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골방에 갇힌 어르신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독한 무더위에 방화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 종사자들도 '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코로나19 사태로 파생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필자가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위해 조용히 일하는 이들,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다.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인내하고 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창궐은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이기적인 자기 보호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이나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 내려고 노력하지만, 내 범주 안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다. 굶거나 죽어가는 이들이 있어도 그들의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당신의 저서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서 "극복하였다고 여기던 구시대적인 본질이 고조되고, 폐쇄적이고 격렬하고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되살아났다"(11항)라고 하시면서 극단적

無等鼓

우리나라 TV 사극에는 왕이 활을 쓰는 장면이 유난히 자주 나온다. 실제 조선왕 조실록 등 기록을 보면 대다수 왕들이 활 쏘기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활 쏘기를 참관하는 내용도 흔하게 보인다. 특히 역성 혁명을 통해 조선을 장악한 이성계는 활쏘기를 왕의 심신 단련 수단이자 전쟁을 대비한 군통수권자의 자세로 여겼다. 신하들은 국경과 학문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왕의 활쏘기를 견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대왕마저도 활 쏘기 참관을 즐긴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시대 지배층들은 활쏘기를 육예(六藝)의 하나로, 덕행을 쌓는 일종의 의례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극명하게 반영된 것이 왕과 신하가 함께 활을 쓰는 대사례(大射禮) 행사였다. 영조는 대사례에서 활 솜씨가 좋은 신하에게는 상을 주었으며 활을 잘 못 쏜 신하에게는 벌주를 내렸다고 한다. 실록에 따르면 가장 활을 많이 쏘았으며, 또 잘 쏘았던 왕은 정조로 알려져 있다. 정조는 활을 쏠 때면 대개 한번에 10순(巡)을 썼는데, 1순은 화살 다섯 대를

이른다. 정조실록 및 박제가의 '어사기'(御擧日記)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하면 정조는 50대를 쏘아 거의 과녁에 맞혔으며, 이중 30대 정도는 과녁의 중앙인 정곡을 맞힐 정도로 명궁이었다고 한다.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 11월21일 세 번째 기사에는 "춘당대에서 활쏘기를 하다. 10순(50발)에 49발을 맞혔다"라고 적혀 있다. 이후 11월22일, 11월23일, 11월25일 등의 기사에도 글자 한 자 다르지 않은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에 대해 정조는 "내가 활쏘기에서 49발 명중에 그친 것은 모조리 명중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50발 중 명중되지 않은 한 발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군왕으로서 겸양의 자세를 보여 주려는 의도일 터인데, 또 그만큼 활쏘기에 대한 정조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림픽 양궁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안산 선수가 최근 광주여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선수로서 세계신기록을 달성하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밝혔다. 파리올림픽에서도 신궁 안산의 활약을 기대한다. /재희회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